

사과문

광주시민프로축구단 팬 여러분, 그리고 저희를 아껴주시는 4만여 주주 여러분.

저희 구단은 시민 여러분의 사랑 속에 지난해 창단하여 현재 K리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단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 말할 수 없는 깊은 유감과 통회의 뜻을 전하오며 팬 여러분께 머리를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구단은 그동안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정당당한 경기를 펼쳐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이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소속선수가 불법 스포츠토토 배당금을 노린 브로커와 접촉한데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은 9일 광주FC 전 골키퍼인 성경모 선수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성 선수는 자신이 받았던 1억원 중 2천만원을 챙기고 8천만원은 소개비 명목으로 김동현과 정종관 선수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광주의 다른 선수들에게 금품은 전달되지 않았고 승부조작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역 축구 발전과 함께 시민들의 연대감을 통해 지역화합에 나서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단은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팬 여러분의 신뢰를 되찾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부정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선수단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향후 선수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퇴출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광주FC 선수단과 코칭스태프를 비롯한 전 임직원은 다시한번 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데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유감을 표하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광주시민프로축구단

광주FC 공식 후원업체 GWANGJU FOOTBALL CLUB SPONSORS





통권 제07호

VIEW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1 · 13라운드

2011. 06. 11 SAT 19:00 KICK OFF

광주월드컵경기장

광주FC vs 성남일화천마

GWANGJU F.C Matchday Program 2011 VIEW-No. 07 ○ 발행일 : 2011년 6월 11일 ○ 발행처 : 광주FC 사무국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423-2 월드컵경기장내 프레스센터 2층 ☎ 062)-373-7733



광주 FC가 오랜만에 팬들 앞에 모습을 보인다. 지난달 22일 홈경기(vs 인천) 이후 20여 일 만이다. 그동안 K리그는 A매치로 인해 휴식기에 접어들었고 광주는 비슷한 시기에 前 소속 선수가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되면서 최악의 한 때를 보내야 했다.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최만희 감독과 코칭스태프, 선수단 전원은 팬들 앞에 땀으로 용서를 구하고자 훈련과 연습경기에 매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 최상의 컨디션과 경기력을 갖추게 됐으며 중위권 도약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준비 또한 모두 마쳤다. 광주의 그 첫 상대는 K리그 15위 성남일화다. 광주FC는 11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성남일화천마를 상대로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1 13라운드 경기를 펼친다. 광주에게 이번 성남전은 절대 패할 수 없는, 패해도 안 되는 경기다. 승부조작 파문으로 인해 팬들에게 안겨 준 상처와 실망을 승리로 매꿔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는 지난달 24일 전 소속 골키퍼인 S 선수가 승부조작 브로커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검찰 수사결과 실제로 승부조작은 이뤄지지 않았고 추가 연루된 선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신생팀으로서, 시민들의 정성이 한뼘한뼘 모여 탄생한 시민구단으로서 그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선수가 신인으로 이뤄진 탓에 선수단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았다. 최만희 감독은 “우리가 팬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승리”라며 다독였다. 악조건 속에서도 지난 2주간 팀을 재정비한 광주는 성남을 발판삼아 중위권 도약을 노린다. 현재 광주의 승점은 11점. 7위 부산과 3점차이다. 팀 분위기와 성적, 팬 심을 잡기 위해 광주에게 성남은 기필코 넘어야 할 산인 셈이다. 최만희 감독은 “광주는 매일매일 변화하며 발전해 가고 있다. 성남전에서는 A매치 기간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줄 생각”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휴일 반납’ 골맛 본 광주
신생팀의 부족한 전력에도 디펜딩 챔피언을 잡은 광주다. 무기는 신인 선수들의 넘치는 패기와 열정뿐. 연패의 늪에 빠져있던 광주는 서울을 꺾으며 3연승을 내달렸다. 여기에는 원정 첫승이라는 성과도 거뒀다. 성남도 마찬가지다. 서울을 상대로 8경기 만에 승리를 신고했다. 그리고 반전을 꺾고 있다. 하지만 승리의 여신은 광주의 손을 잡고 있다. 지난 6경기에서 광주는 3승 1무 2패를 기록했다. 여전히 승리의 기운이 맴돌고 있다. 반면 성남은 1승 3무 2패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안방대결이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광주는 홈에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광주는 지난 12라운드 동안 홈에서 6경기를 치렀고 3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승점 10점을 수확했다. 하지만 성남은 원정 징크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규리그 7번의 원정경기에서 4무 3패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상황이다. 전력부문에서도 광주가 앞선다. 광주는 최근 승부조작사건에 연루되면서 정신력 강화를 위해 혹독한 훈련을 진행해 왔다. 휴일을 반납하고 훈련에 집중했으며 4번의 연습경기

에서 골 맛도 제대로 봤다. 주앙파울로 4골, 유동민 4골, 박기동 2골, 김호남 2골을 기록했고 윤광복, 김성민2, 김성민3, 조우진, 박 현이 각각 1골씩을 넣으며 슈팅 감각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비록 상대가 대학팀이지만 충분한 자신감을 얻은 만큼 정규리그에서의 골 폭죽도 기대해 볼만하다.

광주만의 공격축구를 구사하라
시즌 초반 최만희 감독은 ‘화끈한 공격축구, 즐겁고 재미있는 축구’를 선보이겠다고 강조해왔다. 개막전 광주는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는 펠레스코어 승리를 거두며 팬들에게 두 배의 기쁨을 선사했다. 이후 김동섭이 3경기 연속골을 넣으며 선전했지만 계속되는 원정경기 속 팀은 연패의 늪에 빠졌다. 광주는 공부했다. 프로팀 선배들을 상대로 고전하기도, 물아치기도 하며 능력을 키워나갔다. 점유율 면에서는 뒤졌지만 팬들은 재미있는 경기였으며 격려해 줬다. 그리고 4월 이후 광주의 평균 점유율은 51.234로 나타났다. 득점도 살아났다. 공수 모든 면에서 적극적인 플레이를 이어나갔다. 부상에서 돌아와 컨디션 회복 중인 박기동, K리그에 대한 적응을 마친 주앙파울로, 결정적 한방을 지닌 김동섭이 공격을 물고개를 열어주고 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전형을 사용하는 등 유연성도 생겼다. 광주가 성남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다면 단번에 7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 팬들 앞에 용서를 구할 수도 있다. 광주가 성남을 반드시 꺾어야 하는 이유다.



2011 GWANGJU F.C MEMBERS

광주FC 선수단 소개

 감독 최만희 1958.8.21/중앙대 수원 2군감독(05~10)	 수석코치 여범규 1962.6.24/연세대 울산현고 감독	 수비코치 김정수 1975.1.17/중앙대 용인시청 수석코치	 공격코치 남기일 1974.8.17/경희대 천안시청 코치(09~10)	 전력분석 홍문기 1966.7.2/광운대 가요이 고등학교 감독	 트레이너 추원호 1968.12.24/영남대 대한트레이너협 정회원	 트레이너 박성필 1977.3.15/울지대 대한트레이너협 정회원	 주치의 이준영 1970.7.15/조선대 교수 조선대 정형외과학교실	 1 박호진·GK 1976.10.22/190cm/85kg 연세대																																										
 2 정우인·DF 1988.2.1/185cm/76kg 경희대	 3 박병주·DF 1985.3.24/185cm/79kg 단국대	 4 이용·DF 1989.1.21/187cm/73kg 고려대	 5 임선영·MF 1988.3.21/185cm/77kg 수원대	 6 김은선·MF 1988.3.30/181cm/77kg 대구대	 7 이승기·MF 1988.6.2/177cm/67kg 울산대	 8 안동혁·MF 1988.11.11/176cm/74kg 광운대	 9 김동섭·FW 1989.3.29/187cm/78kg 장흥고	 10 박기동·FW 1988.11.1/191cm/83kg 송신대																																										
 11 조우진·MF 1987.7.7/177cm/70kg 포항고교	 13 김호남·FW 1989.6.14/178cm/73kg 광주대	 14 유동민·FW 1989.3.27/191cm/91kg 조양대	 15 유종현·DF 1988.3.14/196cm/92kg 건국대	 16 김성민·FW 1987.5.11/185cm/75kg 호남대	 17 박현·MF 1988.9.24/175cm/65kg 인원대	 18 김홍일·MF 1987.9.29/178cm/72kg 연세대	 19 박희성·MF 1987.4.7/170cm/68kg 호남대	 20 고은성·DF 1988.6.23/174cm/73kg 단국대																																										
 21 조상준·GK 1988.7.24/187cm/85kg 대구대	 22 김수범·DF 1990.10.2/176cm/68kg 창지대	 23 박성화·MF 1988.8.23/176cm/71kg 조선대	 24 박요한·DF 1989.1.16/177cm/73kg 연세대	 25 김성민·FW 1985.4.19/175cm/70kg 고려대	 26 노해석·DF 1988.11.17/186cm/80kg 동국대	 27 임하람·DF 1990.11.18/186cm/87kg 연세대	 28 윤광복·MF 1989.1.25/180cm/74kg 조선대	 30 김성민·FW 1990.9.27/181cm/73kg 전남과학대																																										
 31 하재원·MF 1984.1.1/188cm/81kg 광운대	 32 박상현·MF 1987.2.11/175cm/68kg 고려대	 34 안성암·DF 1984.4.17/172cm/69kg 중앙대	 35 이재찬·MF 1987.7.26/178cm/69kg 조선대	 37 정파로·FW 1988.6.2/188cm/66kg 브라질	 38 윤민호·MF 1987.1.21/177cm/73kg 강릉시청	○ 공격 포인트 <table border="1"> <thead> <tr> <th>선수명</th> <th>골</th> <th>도움</th> <th>선수명</th> <th>골</th> <th>도움</th> </tr> </thead> <tbody> <tr> <td>김동섭</td> <td>4</td> <td>2</td> <td>유종현</td> <td>1</td> <td></td> </tr> <tr> <td>김성민1</td> <td>1</td> <td></td> <td>유종현</td> <td>2</td> <td></td> </tr> <tr> <td>김성민3</td> <td>1</td> <td></td> <td>이승기</td> <td>1</td> <td>1</td> </tr> <tr> <td>김홍일</td> <td>1</td> <td></td> <td>조우진</td> <td>1</td> <td></td> </tr> <tr> <td>박기동</td> <td>2</td> <td>1</td> <td>주앙파울로</td> <td>4</td> <td></td> </tr> <tr> <td>박현</td> <td>1</td> <td></td> <td>하재원</td> <td>1</td> <td></td> </tr> </tbody> </table>			선수명	골	도움	선수명	골	도움	김동섭	4	2	유종현	1		김성민1	1		유종현	2		김성민3	1		이승기	1	1	김홍일	1		조우진	1		박기동	2	1	주앙파울로	4		박현	1		하재원	1	
선수명	골	도움	선수명	골	도움																																													
김동섭	4	2	유종현	1																																														
김성민1	1		유종현	2																																														
김성민3	1		이승기	1	1																																													
김홍일	1		조우진	1																																														
박기동	2	1	주앙파울로	4																																														
박현	1		하재원	1																																														

“욕심내지 않고 팀 승리 위해 헌신할 터”



INTERVIEW

인터뷰 광주FC·이용 선수

‘투혼의 사나이’ 광주의 든든한 중앙수비수 이용 고려대 주장 출신-장신 앞세운 커버플레이 장점

“큰 욕심내지 않고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돼야죠.”

잘해야 본전(?). 수비수들이 밥 먹듯이 하는 말이다. 90분 동안 상대의 공격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가지만 단 한 번 실수로 죄인이 되고 말막으면 ‘본전치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 경기 ‘잘해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투혼의 사나이가 있다. 바로 광주의 든든한 중앙수비수 이용(23)이다.

그는 경기장에만 들어서면 누구보다도 강한 정신력을 발휘해 상대를 막아낸다. 중요한 순간 부상으로 쓰러질 때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 몸을 추스려 다시 나선다.

평소에는 말없이 조용한 성격이지만 그라운드 위에서는 온몸으로 투혼의 진수를 보여준다.

그는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뛰고 헌신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그런 면에서 광주는 대부분 신인선수들이지만 마음가짐만큼은 대선배들 못지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침착한 플레이가 장점이 이용은 “강팀을 만나면 수비라인이 문전으로 쳐지게 되고 결국 실점으로 이어질 때 마음이 아프다”면서도 “경기 전후로 선수들과 포지션이나 전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발을 맞추다 보니 이전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느낌이 온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처럼 상위권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때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차게 된다”면서 “축구라는 게 팬들의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응원하고 숨 쉬고 느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고교 3년 시절 수비수로 포지션을 바꾼 이용은 고려대 재학시절 주장 완장을 차고 축구부를 이끌었으며, 지난해 ‘제11회 전국대학축구대회’에서 고대를 우승으로 이끌어 MVP를 차지하기도 했다.

프로 필

이용 Lee Yong
등번호 No. 4
생년월일 1989년 01월 21일
포지션 DF
체중 79kg
신장 187cm
좌우명 왼이 담근 땀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명예기자가 바라 본 지난경기



광주FC 김남중 명예기자

경기 내용은 전체적으로 광주가 부산을 압도했고 부산은 전반전 광주의 공세에 큰 위협을 보여주진 못했다.

광주는 지난 인천전에 비해 색다른 모습으로 경기에 임했다. 선수간의 간격유지가 아주 좋았고 이용, 김수범, 김은선의 부상 공백에도 박희성의 부활 그리고 투혼의 쓰러백이 집중력을 끝까지 잃지 않았다. 특히 박희성은 마치 바르셀로나의 사비를 연상케하는 중원의 살림꾼으로 이승기와 함께 공격 빌드업을 하는데 매끄러운 패스력을 보여주며 윙클러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고 생각한다. 좌우로 벌려주는 패스와 공간 공간에 넣어주는 전진패스는 전반전 광주가 리드를 잡는데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해냈다.

이날 경기에서는 전반전 잡은 찬스들만 득점으로 연결 되었다면 경기를 쉽게 끌고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찬스가 왔을 때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상대에게 흐름을 내줬을 때 위기를 맞는다. 그리고 전반전 좋은 찬스들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고 끝나자 후반전 결국 실점을 내줬다. 후반전도 출발은 좋았다. 하지만 후반 65분 결국 선제실점을 내줬다. 부산 득점 빌드업의 시초는 김한윤이었다. 김한윤으로 주고 받는 리턴패스는 사이드로 연결되었고 이는 실점으로 이어졌다. 임상협을 근거리에 두고 유종현의 맨마킹이 아쉬웠다.

하지만 유종민이 공중볼 다트과정에서 홍성요의 팔꿈치에 가격을 당했고 이 상황에서

퇴장을 받아 부산은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수비수 이요한을 투입해 틀어막기에 나섰고 이후 광주의 파상공세가 시작되었다. 부산의 떨어진 체력은 유종민과의 공중볼 싸움에서 밀리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장신인 유종현까지 공격에 가담해 포스트 플레이를 더욱 강화 부산을 위협했다. 그리고 그렇게 물아붙이던 후반 추가시간이 적용 48분. 극적인 동점골이 터졌다. 정우인이 올려준 볼을 유종현이 주앙 파울로에게 밀어줬고 주앙파울로로 부산의 오른쪽 구석으로 정확한 중거리 슈팅을 했다. 부산의 전상욱 골키퍼도 손을 뻗어봤으나 워낙에 강하고 정확하게 구석으로 꽂혔기에 막을 수 없었다.

백화점 · 패션 스토리 · 이마트

광주신세계 TOWN

1995년 4월 10일 광주법인 설립!
광주신세계는 광주기업입니다.

- 2002년 광주·전남기업 중 여덟번째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 광주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모든 금융활동이 현재에서 이루어집니다.
- 지역상품 판로확대 등 일차 마케팅을 통한 상생경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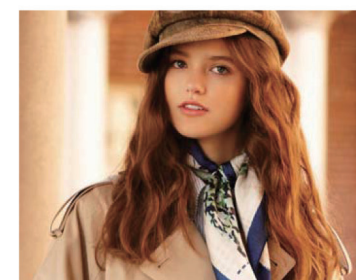


광주신세계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062)606-2500

함께해요 환경사랑
greenLOTTE



40% **빈폴**
액세서리/여름상품 다량입하(4/20~)



50%~30% **MCM**
아일랜드 상품 다량입하



40% **KUHO** 구호



30%~40% **DAKS** 닥스(남/여)